

히라키키 신사

히라키키 신사는 가이몬다케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래된 녹나무의 울창하게 뻗은 가지들이 신사를 감싸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의 신을 모시는 신사이며, 등산객들은 트레일헤드로 향하기 전 잠시 들러 안전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신사는 708년 칙령으로 건립된 곳으로 간주됩니다. 히라키키 신사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밝게 칠해진 주홍색 건축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신도 전통에서 빨간색은 악령과 기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렬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 신사의 독특한 특징 하나는 본당에 있는 용 기둥입니다. 신사 내부에 있는 이 지지 기둥은 용처럼 보이도록 정성 들여 조각되고 채색되었습니다. 이는 지배 계층이었던 시마즈 가문의 책임자가 1786년 그의 42번째 생일을 앞두고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42살은 운이 나쁘다고 여겨집니다. 그가 신사에 바친 선물은 선행을 통해 재난을 피하고자 한 방법이었습니다.

경내 중앙에는 사절관(초쿠시텐)이라는 정성 들여 채색한 건축물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는 황실 사신이 제물을 바치던 곳입니다. 지붕의 물결 모양 박공 아래 달린 처마에는 우아한 국화가 그려져 있었으며, 이는 신사가 황실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금빛 상아를 가진 코끼리, 사나운 사자개(시시)와 더불어 무척럼 그 자체로 상서로운 상징인 비교적 일반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